

김인숙 선생님을 생각하며

이 필환

학부나 대학원시절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 중 많은 분들이 정년 후 학교를 떠나셨다. 애석하게도 타계하신 분들도 몇 분은 계시고 근황에 대한 소식조차 접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가끔씩이나마 뵙게 되는 분으로 황찬호 선생님과 김인숙 선생님이 계신다. 황찬호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왕성한 교육열을 간직하시면서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지방대에까지 강의를 나오시니 거의 매주 뵙게 되고, 김인숙선생님은 영어사학회일로 서울에서 혹은 지방에서 자주 찾아 뵙 기회가 있었다. 연배가 차이가 나시고 전공도 다른 두분을 굳이 함께 언급한 이유는 두분은 정년퇴임과 상관없이, 오히려 정년퇴임 후 더 자신감 있으시면서도 평온한 모습을 계속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제자된 입장에서는 더할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김인숙선생님 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 좋은 분”이다. 화를 내시거나 언성을 높이시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면을 보이신다. 학생시절 설날에 세배를 하러 가면 미리 현관에 맥주 여러 박스를 준비해 두시는 분이셨고, 몇 년전부터 선생님 주도로 창립된 영어사학회에서도 연구회 때 오시는 선생님들께 개인 돈을 보태어 넉넉한 점심과 저녁 식사를 대접해 보내시는 분이셨다. 본인이 전공으로 택한 영어학이란 학문은 그 이론적인 성과면에서는 나날이 발전을 해가고 있지만 그 발전의 뒤에는 학문의 기본이 되어야 할 삶에 대한 성찰이나 타

인에 대한 애정을 키우는 면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바 있고 심지어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론의 무기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때도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인숙선생님께서는 “따뜻한” 학문을 하는 본보기를 보여 주신 듯하다. 내 주장만을 옳다고 내세우기보다는 이런 저런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주셨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보도록 폭넓은 시야를 키워 주셨다. 선생님께서 전공하시고 또 본인이 선생님의 영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영어사 분야는 이런 다양한 견해를 살릴수 있는 학문적인 장점이 있는 듯하다. 한 언어, 구체적으로 영어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려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역사성을 바탕에 깔고 언어 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등 사회 분야의 여러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한다. “이것이 변화의 주 요인이다”는 정답을 바로 줄 수 없는 영어사 연구의 학문적 성격과 선생님의 개방적이고 포용력 있는 사고는 참으로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는다. “정답이 없는 학문이 학문이냐?”고 나무라신다면 본인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보다 폭넓고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고 싶은 마음을 못 버리는 것은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은연중의 가르침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선생님의 짧은 시절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알 수 없지만 김인숙 선생님께서 지금도 스승으로 깎듯이 모시고 계시는 조성식선생님의 말씀을 빌려서 몇 자 적어본다. 조성식선생님께서 사대 영어과에 계실 때 가르치신 제자 분들 중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조성식선생님께서 사석에서 제자들에 대한 옛 회고담을 펼치실 때는 꼭 김인숙선생님과 전상범선생님 말씀을 하신다.—“나는 인숙이와 상범이를 참 좋아해. 그렇게 사람이 좋을 수가 없거든!” 6.25때 단신 월남하셔서 우선 당장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전상범선생님과 함께 공군에 자원 입대하셨다는 말씀을 담담하게 하실 때에는 그 시절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간직한 꿋꿋함을 엿볼 수 있다. 군에서도 두분이 같이 영어 공부도 하셨다고 하고, 김인숙 선생님께서 건강 때문에 군 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일 때에는 전상범 선생님께서 목하 열애 중이셨던 박진희선생님과 같이 병문안인지 약올리려는 방문인지 알 수 없는 방문을 하신 적도 있다고 한다. 두분이 정년기념논문집에 서로 써 주신 회고담 속에서도 50년간 지속된 두분의 우정이 배어 있어서 논문집 속의 어떤 논문보다도 감동적이었다.

학교를 떠나실 때도 가지고 계시던 책을 제자를 위해 일일이 가려 나누어 주시던 제자사랑이 새삼스러웠고 이번 영어사학회의 가을 연구회 준비를 위해서도 학회 임원진들을 격려해 주시는 배려가 고맙게 생각된다. 며칠 전 모교를 방문하던 중에 붓글씨를 공부하시려 김인숙선생님께서 학교에 와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뵙지는 못하고 내려왔지만 정년 후에 더욱 활동적이 되신것 같아 속으로 기쁜 마음이었다. 실제 선생님께서는 정년 후에 오히려 더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전공을 떠나서 이런 저런 책을 잡게 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영어라는 언어의 울타리가 있고 그 속에서 다시 폭넓은 언어학이란 굴레를 쓰고 평생을 계시다가 그 속박(?)에서 벗어나시니 그런 의욕이 생기실 수도 있으리라고 짐작해 보았고 한편으로는 부러운 생각도 들었다—어떻게 하면 삶과 유리되지 않는 학문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본인이 영문과의 조교로 근무하던 6-7년 전에 선생님께서는 쓰러져서 큰일을 당하실 뻔한 고비를 넘기고 어렵게 건강을 회복하셨다. 그 당시 동안의 공백 때 본인이 선생님의 강의를 대신 했던 일을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두고두고 말씀하실 때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 본인의 박사논문을 심사하실 때에도 본인이 부탁 드린 바도 없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외국인에게 보여주고 고친 후 돌려주실 때에는 선생님의 제자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졌다. 사위가 의사신데 뭐 걱정할 것이 있느냐는 주위의 농담 반 진담 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건강이 염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주 좋아하시는 조성식선생님을 모신 자리에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잘 못하시는 약주도 입에 대신다. 따님 세 분을 예쁘게 키워서 훌륭한 사위를 보신 가정의 화목함이 부럽고 따님들 덕분에 여기 저기 여행을 다니시는 형편도 무척 좋아 보인다. 선생님의 주위에는 늘 사람이 따르고 온정이 느껴지는데, 본인이 참석하지는 못 했지만, 정년 퇴임식 때에도 외부에서 친구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는 흐뭇한 광경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선생님께서는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신다. 정년 기념행사도 간소하게 하셨으면 하셨고 논문집도 거창하게 만들기를 꺼려하셨다. 이번 이 글도 기획의도로 볼 때 당연히 선생님께서 직접 쓰셔야 되는데, 아마도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그런 글을 어떻게 쓰느냐고 생각하신 겸양 때문에 사양을 하셨을 것이다. 선생님의 그런 겸양을 배우지 못한 이 제자의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과 동문 선후배님들의 너그러운 용서가 있었으면 한다.